The Bond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4. 10

4월 금통위 Review: 연내 인상보단 동결 장기화

채권 우혜영
whydele@ls-sec.co.kr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과 파급 영향 확인 필요하기에 동결

2026년 4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되었다(2.50%). 동결의 배경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단순히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결정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과 파급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한 공급 충격에 대한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2차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그 영향이 장기화된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지만, 충격이 일시적이라면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해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최근 신현송 의장 지명자의 "일시적인 에너지 공급 충격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대응이 불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전개 양상과 물가·성장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는 발언과 완전히 일치했다. 다음 달에 있을 신임 총재의 첫 금통위에서도 기존의 통화정책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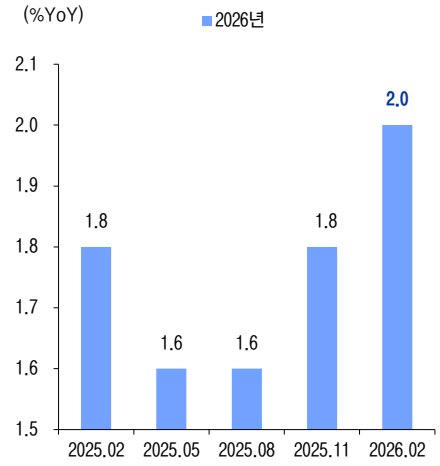
성장 하방 압력·물가 상방 압력 증대 = 동결 장기화?

「(TGIF Vol. 175)4월 금통위 Preview: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회의, 관전 포인트 2가지」에서 연내 인상 가능성 관련 스탠스와 5월 수정경제전망에 대한 힌트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2월 금통위 당시 향후 3개월 이내 인상 가능성 언급한 금통위원은 없었고 6개월 이내 인상 의사가 있는 금통위원은 1명이었다. 지난 6주 간 대내외 여건이 급격한 변동, 특히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급등이 물가와 성장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감은 높아졌다. 이날 이 총재는 포워드가이던스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 "향후 3개월 내 인하 및 인상 논의는 없었고 중동 사태를 지켜보기로 했다"는 발언으로 대신했다. 이번 회의에서 3개월 이내 인상 의지를 보인 금통위원이 있었다면 연내 인상을 반신반의하던 시장의 기대가 확신으로 바뀔 수 있었고, 이는 국고 금리 상단의 추가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인상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원론 수준의 발언이었고, 2차 파급 효과를 파악하려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이날 금통위 결정과 이 총재 발언은 채권시장 추가 약세 재료로 작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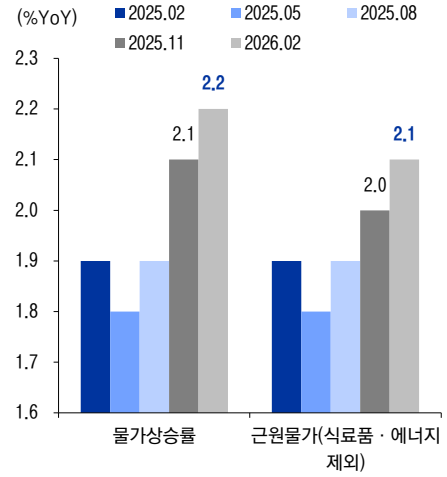
통화정책방향문구에서는 성장과 물가 전망의 상향이 아닌, 성장 전망 하향과 물가 전망 상향이 시사되었다. 물가와 경기 간 상충이 심화될 우려가 확대된 것이다. 섣부른 통화 긴축 전환은 쉽지 않아 졌다. 향후 중·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레벨을 유지해준다면 **연내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장기화를 전망**한다.

그림1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시사**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물가상승률 전망치 상향 시사**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2026년 2월과 4월 통화정책방향문구**

	2026년 2월 통화정책방향	2026년 4월 통화정책방향
금리결정	• 기준금리: 2.50%로 동결(만장일치) •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	• 기준금리: 2.50%로 동결(만장일치) •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 및 성장의 하방 압력이 함께 증대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파급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투자 확대,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임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위험회피심리가 다소 강화되었음. 장기 국채금리가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상승하다가 하락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엔화 강세,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판결 등으로 약세를 나타냈음.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을 반영하여 대체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나 AI 과잉투자 및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AI 투자 및 지정학적 위험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 받을 것	• 세계경제는 그간 AI 관련 투자 및 주요국의 재정 확대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음. 장기국채금리가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큰 폭 상승한 가운데 미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되고 주가가 크게 하락. 다만 미국·이란 간 임시휴전 이후에는 이러한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는 모습 •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중동사태의 전개양상,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AI 투자 흐름 등에 영향 받을 것
국내경제	•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였음 •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음 • 앞으로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겠으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도 **반도체 경기 호조 및 양호한 세계경제 성장세**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러한 성장 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및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미 관세정책, 지정학적 위험** 등과 관련한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	•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였고 고용도 취업자수 증가 흐름을 이어갔지만, **중동사태 이후에는 경제심리가 약화되고 일부 업종에서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등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 • 앞으로 국내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및 추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이러한 성장 경로는 **중동사태 전개 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반도체 경기 및 내수 회복 흐름 등에 크게 영향 받을 것
물가	• 물가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1월 중 2.0%로 낮아졌으며, 근원 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음.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 • 금년 소비자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 압력**으로 지난해 11월 전망치(각각 2.1%, 2.0%)를 소폭 상회하는 2.2% 및 2.1%로 전망 •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 받을 것	• 국내 물가를 보면, 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은 석유류가격이 큰 폭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높아졌으나, 근원 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2.2%)은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폭 둔화 등으로 소폭 낮아졌음.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 2.7%)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 •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상방 압력이 크게 확대**되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면서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근원 물가상승률도 당초 전망(2.1%)보다 다소 높아질 것** •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 **비용 상승의 파급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
금융시장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외국인 주식매도 등 수급 부담과 엔화 등 주변국 통화 움직임에 영향 받으며 등락하다가 최근 상당 폭 하락하였음. 주가는 주요 업종 실적호조 전망, 자본시장 제도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영향 받아 변동성은 확대. 국고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약화, 머니무브 등에 따른 수급 부담으로 상당 폭 상승하였다가 일부 되돌려졌음 •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 지속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500원대로 높아졌다가 미국·이란 간 임시휴전 이후 하락.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하락하였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던 주가도 조정 받다가 일부 반등하는 등 큰 폭으로 등락하였음 •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 지속으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고 **가격상승 기대도 약화되었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 국내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소폭 높아지겠지만 목표수준 근처에서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은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나갈 것 • 국내 경제는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위험과 성장의 하방 위험이 모두 증대된 가운데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에 유의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중동전쟁 등 대내외 여건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금통위 Q&A 주요 내용

통화정책 고려 요인

- (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이) 어느 기준이 되어야 반영할 지는 기계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원칙은 명확함
- 2차 파급효과가 없고 단기적이라면 가급적 통화정책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음. 반면 2차 파급효과가 있고 지속적이라면 대응 필요. 그 때도 경기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원칙

중동 전쟁 관련

- 러-우 전쟁 때와 비교하면, 주가나 환율이 높은 상황이며 경기는 회복세 진입하고 있으나 지난해의 1%의 성장에서 회복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회복세라 말하기 어려움. 러-우 전쟁 이후는 팬데믹에 의한 지연된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 측만 보면 그 압력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만 공급충격에서 보면, 러-우전쟁은 유럽지역에 영향을 준 반면 중동 사태는 아시아 지역 특히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대만 등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공급 충격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음
-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 지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계속 가져 갈 수 없음. 높은 유가가 상당 폭 지속되면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 종전 사태 마무리될지 보고 판단 가능.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올라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포워드가이던스 관련

- 최근 몇 주간은 중동에서 오는 뉴스에 따라 경제 변수가 너무 급격히 변동. 금리 인상 및 인하 논의하기 앞서, 중동사태의 전개 방향과 2주 협상 과정, 이 과정이 자리를 잡아야 거기에 맞춰 의견을 나누고 논의 가능
-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인상 및 인하 논의 없었고 사태 지켜보기로 함
- 후임자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지난 3년간 임기 중 계속 준비를 해왔고, 금통위원들과의 상의 끝에 2월에 향후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타이밍 상 좋았던 것 같음
- 향후 6개월에 대한 한은의 생각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한은이 원하는 방향으로 금리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그 효과 있었다 봄. 물론 반대로 금리 올리는 쪽으로 충격 생기면 부정적 반응도 있을 것(소통 오해 발생 가능)
- 성공 여부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못지않게 시장과 언론이 이것이 조건부임을 받아들일 것이냐임
- 포워드가이던스 지속 여부는 신임 총재가 결정할 것. 당연히 계속되었음 좋겠다는 입장

성장률 전망 및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 지금까지 속보치 보면 수출은 저희 생각보다 좋고 건설은 저희 생각보다 나쁨. 건설투자 기조에 환율 높아지니까 건설 비용도 상당히 올라 나쁜 쪽으로 가고 있음
- 종합적으로 어떻게 될지, 추경 영향 고려해서 5월 말에 금통위 때 발표 예정. 시나리오 별로 전망 제시 예정
- 가장 큰 변수는 중동사태가 여기서 끝날지, 에너지인프라 손실 여부 등
-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 2.2% 기록, 성장률 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 가능하고 추경도 하므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現 시점에서 말하라고 하면, 만약 이란 사태가 종결되면, 가능성 적다고 말할 것 같음
- 다만 2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하고, 매일 변화무쌍. 그 과정에서 에너지 인프라 파괴 등이 있다면 종전이 되도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간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부인 불가

부동산 시장 및 거시건전성 강화 정책

- 강남 지역 또 서울 지역의 15억 이상 대출 불가능한 부동산은 안정세·약간 하향 국면 보이기 시작. 반면 수도권 주변 부동산은 다시 조금 올라가는 국면에 있어서 완전 안정화 되었다 이야기 하기 어려움
- 부동산 정책은 정책 하나로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님.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모든 자산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구조가 계속되면 국민 양극화, 계층간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 나쁜 방향
-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함.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가계대출 제한 등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자에 대한 비용상승 등 여러 불편함이 있겠지만, 몇 십년 간 방치한 것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

원달러 환율 및 외환 개입 관련

- 환율은 참 어려운 문제. 예측이 어려우며 변동성도 큼
- 작년 4분기(11~12월)는 달러 인덱스에 비해 훨씬 더 절하됨. 그 동인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급증. 올해 2~3월은 달러 인덱스 변동에 따른 변화. 그 이후에는 달러보다 많이 변동. 그 동인은 외국인의 주식 매도(외국인 주식매각 액수가 1~4월 478억(3월에만 298억 유출). 2025년 연간 70억). 이는 주가 급등에 따른 이익실현 및 중동사태로 인해 한국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
- 현재 환율은 중동사태와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면에서 작년 11월~12월과는 차이 있음
- 경상 수지 흑자가 굉장히 커서 외화 유동성 풍부. 현물 환율은 달러에 비해 많이 올라갔지만 대차시장에선 달러를 바꾸지 않고 빌려주려는 수요가 너무 커서 달러 가치가 제일 떨어져있는 이상한 현상 지속 중
- WGBI 편입에 따른 해외 자금 유입 가능성,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규모 감소,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축소 등 고려 시 이란 사태가 안정되면 빠르게 상승한 만큼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원/달러 환율 많이 올랐는데 당시에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절하 기대 심화되면서 지금 수준보다 더 높아졌을 것. 그 당시에 개입한 것 잘한 것이라 생각
- 외환보유고는 과도하게 절하될 때 개입하라고 있는 것. 단, 일시조정하는 역할이지, 영구조정하는 역할이 아님
- 요새 1,400~1,500원의 원/달러 레벨이 구조적으로 자리잡는 언론보도가 많은데 이론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움
- 환율 평가 시 그 수준을 보지 말고 달러인덱스와의 격차, 변동 속도, 채권국인지 채무국인지가 중요
- 1997, 2008년 위기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시장금리 평가 및 WGBI 편입 관련

- 대외 공개된 4월 채권시장 유입 해외 자금 규모는 46억 달러. 이 중 WGBI 자금으로 파악되는 수치는 약 11억 달러. 아직 초기임. 일본계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음. 5~6월에 자료 더 모이면 명확해질 것
- 초기 집중되어 해외 자금 유입 예상. 11월 이후에는 투자 베이스가 커졌으므로 계속 유지될 것. 기대하는 것은 액수도 그렇지만 투자자 베이스가 조금 더 장기,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봄
- (시장금리에 기준금리 선반영 관련) 현재 3년짜리 금리가 3.3~3.56% 상태. 금년 연말까지 시장에서 인상 기대가 1회나 2회다라는 이야기 있음
-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3년물 금리 변동 큼. 매일 기대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시장금리만 보고 오늘은 2회 인상, 내일은 1회 인상 이렇게 해석하는 것 무의미. 변동성 좀 잦아진 후 시장 예상 확인해야하는 시점

대미 투자 200억 달러 관련

-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이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 미리 정부에 알려드렸고, 또 MOU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 규모는 얼마인지, 외환시장 불안을 유발시키지 않는 선에서 한다는 것을 포함시킨 것. 법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외환보유고 문제 있거나 외환시장이 흔들릴 때 이건 더 이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금통위 통해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이에 근거해 행동할 것

재정 및 추경 관련

-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 유지, 재정준칙 도입 등 원칙 말씀드렸던 것 반복하겠음
- 금번 추경에서 긍정적인면은 이란사태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위험 큰 상황에서 (재원을) 부채 조달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부채를 통해 조달한 것
- 추경 세부 내용 보면 지방으로 돈이 많이 가는 것 긍정적. 다만 지방교부세가 4.7조원,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4.8조원. 법으로 세수가 걷히면 일정 부분 교육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음. 과거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의무교육을 해야할 때는 바람직한 지출 항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추경을 통해 어려운 부분, 경기 대응하는 측면에서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초중고 교육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합당한지 모르겠음. 이런 경직성은 재고 필요

차기 총재 관련

- (신현송 의장 지명자의 외화자산/통화정책 간 이해 상충 논란) 국민 정서에는 어긋날지 모르지만, 해외 인재를 모셔오는데 해외 인재가 해외자산이 있다고 해서 여러 우려를 걱정하는 것은, 신임 총재가 판단하겠지만 너무 크게 고려하는 것 같음. 신현송 교수님의 애국심이 갖고 있는 자산보다 더 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우혜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